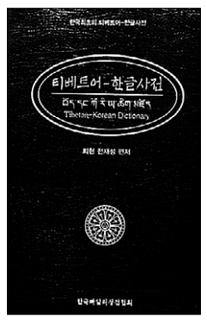
국내 최초 '티베트어 한글사전' 출간

3만7000여 단어 수록… "불교 언어 원형 의미 밝히는데 필수"

<법구경-담마파다> <앙굿따라니까야>등 빨리어 초기경전 번역활동을 통해 부처님 원음 재현에 일생을 바쳐온 전재성 박사(57 ·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회장)가 국내 최초로 <티베트어-한글사전>을 출간했다.

이번 사전 출간을 계기로 인도-티베트-중국을 거치면서 한국으로 건너온 초기 및 대승불교 경전의 오역(誤譯)및 중역(重譯)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재성 박사는 "8세기 무렵 인도 불교의 몰락이 시작됐고 13세기에 이르러 이슬람이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의 많은 스님이 초기 경전을 들고 티베트로 건너갔다"며 "인도에서 소실된 경전들이 티베트에는 남아있고 중국의 대승경전들도 티베트어로 번역돼 있어 <티베트어-한글사전>은 불교 언어의 원형적 의미를 밝히는데 필수"라고 설명했다.



<티베트어-한글사전>(한국빠알리성전협회刊).

전재성 박사는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면 티베트어도 공부해야 한다"" 강조했다.

<티베트어-한글사전>에는 총 3만7000여 개의 단어들을 수록하고 있다. 티베트 여행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간단한 티베트 회화를 수록했고 티베트 역사와 달라이 라마의 계보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사전은 현대 라싸어를 표준으로 채택해 어휘와 발음을 통일시켰다. 현재 티베트본토가 중국의 자치주로 편입된 만큼, 새롭게 티베트어에 녹아 들어간 중국어를 포함해 많은 현대적 어휘와 방언들을 실었다.

전 박사는 "이 사전은 현대어를 위주로 했으나, 방대한 대장경을 통해 오랜 역사가 지났음에도 문어적으로 고정돼 크게 변화를 겪지 않는 티베트어의 특성상, 고전 티베트어의 해석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몄다"고 밝혔다.

또한 전 박사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티베트어의 중국식 발음체계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티베트어의 함부르크식 알파벳옮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성조체계를 도입하는 퇴현(전재성 박사의 '호')식 발음체계로 사전을 완전히 바꾸었다.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 · 박사를 수료한 뒤 독일로 유학을 간 전재성 박사는 1983년에 만난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Peter Neujahr)에게서 티베트의 대성자인 밀라래빠와 그의 <십만송>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티베트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대승불교의 주요한 불교경전을 현대적으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문이나 빨리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전 박사는 간간히 국내외 학인들이 티베트어 사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티베트어 음성체계나 사성체계가 워낙 복잡해 아무도 마무리를 하지 못했고 이를 기다리다 못해 전 박사가 직접 티베트어 사전 편찬 작업에 뛰어 들었다.

전재성 박사는 2006년부터 빨리대장경 번역을 하면서 틈틈이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전 박사는 1956년 중국이 티베트를 합병한 이후, 중국의 유따오추앤(于道泉)이 라싸 시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중심으로 편찬한 사전 <장한대조라싸구어 사전>과 독일의 미카엘 한(Michael Hahn)이 고전티베트어연구를 정리한 <고전티베트문어교본(Lehrbuch der Klassischen Tibetischen Schriftprache: 1981)>의 부록 사전에 나오는 2000여 어휘, 그리고 멜빈 골드스테인(Melvyn C. Goldstein)의 <현대 티베트어-영어사전>을 대조해 5000여 단 어휘를 취합한 3만7000여 어휘의 사전을 완성했다.

이 과정에서 전 박사는 중국의 티베트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 이를 위해 중국어를 새로 공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한글프로그램에 티베트어 폰트가 호환되지 않아 번번히 실패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제작비용이 부족해 사전을 구입할 사람들에게 미리 돈을 받아 책을 내기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최근 인간의 영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에 다양한 티베트 관련 서적들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전 박사는 "티베트 철자법에 대한 음성학적인 발음체계가 알려지지 않아 티베트 관련 서적들을 한글로 옮겨 적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싸(拉薩)의 '포탈라궁'의 경우 '뽀딸라'라고 표기하는 게 티베트 원음에 가깝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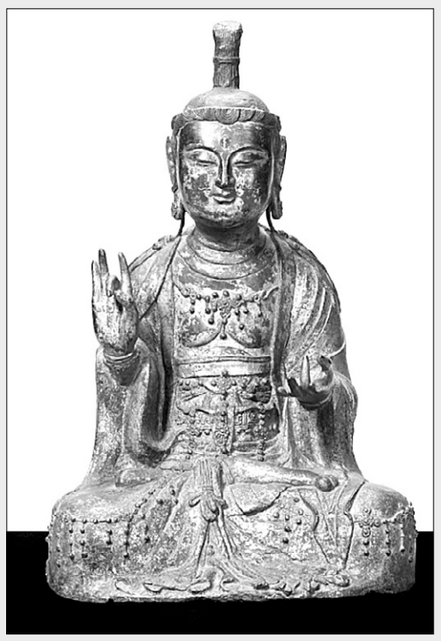
전재성 박사는 <디가니까야> 완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그는 "한문은 표음문자, 티베트어는 소리문자다. 소리문자는 번역하기가 더 쉽다. 한문으로 된 불경번역을 탈피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더욱 멀어지기 쉽다"며 티베트어 사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고려 금동보살좌상 첫 공개

국립중앙博 12월까지 고려실에서 선보여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9년 신규 구입유물인 금동보살좌상과 고려왕실무덤 출토품 등 100여 점을 상설전시관 1층 고려실에서 전시한다.

금동보살좌상은 생각하고 있는 듯한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국보급 유물로 고려시대 후기에 유행했던 '단아양식'(신고전적양식) 계열의 전형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불상의 표면에 칠해진 옻칠기법이 통일신라시대 이전 시작돼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전통칠기법이며 방사성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1370년 경(고려 공민왕대) 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물관 측은 "개인 소장 물품으로 구입 등 구체적인 경로는 밝히기 힘들지만 문화적 가치가 충분해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다"며 "문화재 지정도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강화 고려 왕실무덤에서 발굴된 청자와 화려한 장신구, 기와와 용머리, 수레굴대부속품 등도 선보여 대몽항쟁기의 고려왕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정토' 관념서 벗어나 실체로

한국정토학회 학술대회서 정토의 존재 논의

정토신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중진학자들이 참여해 정토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정토학회(회장 도업)는 7월 8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에서 '과연 제불(諸佛)의 정토,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도업 스님은 "불자들 가운데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정토의 존재를 관념론적인 정토로 해석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많다"며 "이에 각 제불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정토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그 존재에 대한 의혹과 궁금점을 해결하는 의미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술대회에는 도업 스님이 '제불의 정토'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존재에 대한 연구'를,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가 '미륵의 정토 세계'를,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장이 '화엄의 연화장 세계'를,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천문학에서 본 불교우주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업 스님은 기조발표에서 정토란 무엇인지, 정토의 정의(의미) · 명칭 및 종류와 정토에의 실천 행 등을 살폈다.

불교교학상에서 말하는 정토는 말 그대로 '깨끗한 국토' 또는 '청정한 불국토'라는 뜻이다. 대승불교 사상에서 보살이 이상향으로 추구하는 세계가 정토다.

그런데 그 정토의 이름과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왜 그렇게 다양한 이름과 종류의 정토가 나타나게 됐을까?

스님은 "불타관의 전개상에서 보면, 불신설에 일신설, 이신설, 삼신설, 다신설 등이 나타났는데, 다신불 사상이 생겨나면서 불의 국토(정토)도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에 따라서 정토의 이름과 종류 또한 다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승불교시대에 다불(多佛)사상이 주장되며 수많은 부처가 나타났지만 크게 역사상의 부처님과 진리의 부처인 비로자나 법신불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스님은 "부처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처럼 정토에도 타방정토, 십방정토, 유심정토 등 다양한 정토가 있다. 요약하면 마음 밖의 특정한 장소에 있다고 하는 타방정토와 오직 마음에 있다고 하는 유심정토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타방정토는 신앙성을, 유심정토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어떻게 하면 대승보살의 이상세계인 불국토의 정토를 건립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했다.

스님은 "정토는 대승보살의 원(願)과 행(行)에 의해 건립됐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겠다는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 행과 공덕 쌓음에 의해 불국정토는 건립된다"며 "이 땅을 정토로 만들 것인가 예토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굳은 서원과 실천행과 공덕을 쌓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법수사지 삼층석탑 보물 승격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7월 6일 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에 위치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86호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사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656호로 승격, 지정 고시했다. 보물로 승격되면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유형문화재는 자동 해지된다.

'성주 법수사지 삼층석탑'은 높이는 5.8m로, 상 · 하 2층 기단에 3층 탑신부를 올린 양식이다.

석탑은 옥개석(지붕처럼 덮는 돌)의 층받침이 5단인 신라석탑의 전형으로 학계에서는 석탑 건립시기를 9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석탑의 규모가 작고 하층 기단이 높으며, 안상(위를 받치는 듯한 기단 장식)이 음각된 점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안동 옥동삼층석탑 등과 같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수사는 802년(신라 애장왕 3년) 창건됐으며 당시 금당사(金塘寺)로도 불렸다. 고려 때 중창해 현재 이름으로 고쳤으며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불에 탄 뒤 폐사됐다. 삼국유사에 '법수해인사'라는 문구가 나오며 성주읍지(星州邑誌)에는 구금당, 팔종각 등 1000 여 칸이 넘는 건물과 100여 암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는 삼층석탑 외에 당간지주와 석축만이 남아있다. 노덕현 기자

석가여래부처님, 팔만사천성군님, 천백억화신천지신명,
세계승왕 인왕예하, 불교종단총연합회장 의륜대종사, 불교종정협의회장 월인대종사, 불교각종단종정큰스님, 대한민국이 증명한다.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 일시 : 오는 7월 30일(금) 음 6 · 19 오전 10시 입장 -기도 / 오전11시 - 법요식
• 장소 : 대구문화웨딩홀 대연회장 6층 (동대구역에서 5분거리 ☎ 053-756-1100)

주최 :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후원 : cbc108.tv연합불교방송

임원추대식 및 임명

총 재 청암 도한수 대종사 총남불교조계종종정
부총재 현광 김용익 대종사 대한불교달마선종종정
부총재 법각 지오 대종사 대승불교조계종원로원장
부총재 청원 박수웅 대종사 대한불교불광종종정
명예회장 안신풍 대종사 대한불교대원종종정
회 장 석연화 대종사 호국불교소림선종총무원장
부회장 심향 법장 대종사 한국불교구산선문회회장
부회장 만주 조성수 대종사 한국불교대불종총무원장

평화대사 위원회 회장 자성존 김범렬 교령 용화불교 ·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회장 만주 조성수 대종사 회장 각각 추대

취지문 | 전문 한국전통문화 개발과 발전에 공헌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문화와 예술, 언론, 사회, 교육, 경제 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전 세계 각국 인사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계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계불교인 상호 국제 문화 교류를 통해 국제간의 유대를 도모하고 연합 공동 행사를 주관하여 아름다운 인류복지사회를 건설하여 끝내는 정토세계에 도달하고저 한다.

초청의 말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총재단 · 회장단 추대식과 함께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를봉행코져 하오니 동참하시여 우리 전통 문화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불교문화를 꽃피우기 위해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 이 뜻을 웅집하여 우리의 결의를 만천하에 알리고져 평화 동의 일환으로 계층과 종파를 초월하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교계, 각계 인사께서는 동참하여 평화를 기원합시다.
• 일 시 : 오는 7월 30일 (금) 음 6 · 19. 오전 10시 기도 / 오전 11시 법요식
• 장 소 : 대구 문화웨딩홀 대연회장 6층 (동대구역에서 5분거리 ☎ 053-756-1100)
• 법요식 : 기도 10시 / 법요식 11시 / 만찬 1시 30분
• 추대식 : 임원 추대식 및 임명
• 시 상 : 평화대사 임명 평화기장 수여 부설단체장 임명 추대 100여명
• 문 의 : 011-356-3427 법왕자 김소부

평화운동 주인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전통문화예술단체, 불교종단 및 신행단체 등 법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 지금 등록하십시오.
시도본부 사무소 개설 희망자
서울 구로 구로4동 732-2 ☎010-2500-0111 011-356-3427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중앙본부 사무총장 법왕자 김소부

총회위원장 만주 성수 대종사 한국불교대불종총무원장
봉행위원장 일웅 철우 대종사 한국불교전법조계종종정대행
대 회 장 법정 철회 대종사 대원불교조계종종정